

출산·양육 관련 지역사회자원 욕구 사례 조사 결과

A Case Study on Community Resources Needs in Child Birth and Rearing

신윤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본 고에서는 출산·양육에 대한 수요자의 자원 이용 현황과 서비스에 대한 욕구를 지역사회 조사를 통해 파악함으로써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사례 조사는 2007년 10월 1~12일 동안 서울시 성동구, 강원도 강릉시, 경상남도 하동군에 거주하고 있는 20~30대 자녀를 가진 여성 7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분석 대상 서비스는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정보, 상담, 도우미 지원 등), 영유아(학령전 아동) 보육, 초등학교 저학년(1~3학년) 방과후 보육, 가족 생활 관련 상담 및 교육, 직업 관련 교육 및 훈련의 다섯가지를 포함하며, 서비스에 대한 욕구는 서비스 이용 현황(주로 이용하는 서비스, 정보제공, 접근성), 서비스에 대한 평가(비용부담, 서비스 질, 만족도, 개선이 시급한 사항, 적절한 서비스에 대한 인식의 세가지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1. 서론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는 1980년대 중반부터 고착화되어 2005년 합계 출산율이 1.08을 기록하는 등 점차 심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저출산고령화는 경제 활력을 저하시키고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킬 뿐 만 아니라 조세 및 사회 보장비 부담을 증가시켜 세대간의 갈등을 야기시킬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종합적이고도 체계적인 대책의 일환으로 2006년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는 저출산이 다양한 사회적 환경적 요인에 의해 유발되었다는 이해 하에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각적인 측면에서 과제를 제시하였으며, 특히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양한 세부 추진 사업을 제시하였다¹⁾.

세부추진사업 내용에 나타난 바와 같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출산·양육과 관련한 다양한 분야에 대한 지원 및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며, 특히 직면하고 있는 현실에 따라

1)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이 제시하는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조성과 관련한 세부추진과제는 크게 육아 인프라 확충, 모성보호/신생아 건강, 일 가정 양립, 가족 친화적 사회문화, 아동 안전 및 건전한 성장의 다섯가지 분야로 볼 수 있다.

수요자가 서로 다른 상이한 욕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정부는 지역사회에서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하여 시민들의 출산 양육 관련 서비스 욕구를 충족시킬 필요가 있다. 이러한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함에 있어서는 다양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출산 양육에 대한 시민들의 욕구를 효과적으로 충족시켜 사회 전체적인 효용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본 고에서는 이러한 필요성에 부응하기 위해 출산 양육에 대한 수요자의 자원 이용 현황과 서비스에 대한 욕구를 지역사회 사례 조사를 통해 파악함으로써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조사 개요

본 고에서는 출산·양육과 관련한 사업들 중에서 민간 자원을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는 사업 중, 선행연구 고찰과 사전 인터뷰를 통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특히 민간 자원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파악된 서비스들을 연구의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²⁾. 이러한 서비스에는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정보, 상담, 도우미 지원 등), 영유아(학령전 아동) 보육, 초등학교

교 저학년(1~3학년) 방과후 보육, 가족 생활 관련 상담 및 교육, 직업 관련 교육 및 훈련의 다섯 가지 서비스를 포함한다.

도시화 정도에 따른 수요자의 서비스 욕구 충족 현황을 파악하고 각 지역의 특성에 적합한 지역사회자원 활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본 조사에서는 대도시, 중소도시, 농촌을 대표할 수 있는 지역을 한 곳씩 선정하여 총 3개 지역을 조사 지역으로 하였다. 조사 대상 지역으로 대도시는 서울 성동구, 중소도시는 강원도 강릉시, 농촌은 경상남도 하동군을 선정하였다³⁾. 조사 대상은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20~30대 기혼 여성으로 하였으며 조사 규모는 각 지역당 250명으로 총 750명을 조사하였다. 서비스에 대한 욕구는 크게 다음의 세 가지 분야에 대해 파악하였다: 서비스 이용 현황(주로 이용하는 서비스, 정보제공, 접근성), 서비스에 대한 평가(비용부담, 서비스 질, 만족도, 개선이 시급한 사항), 적절한 서비스에 대한 인식. 수요자 조사는 전문조사기관인 (주)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하여 2007년 10월 1일부터 12일 동안 훈련된 조사원이 각 조사 지역을 방문하여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여 직접 면접 방식으로 조사 하도록 하였다.

2) 본 연구에서는 자원 유형을 정의함에 있어 서비스를 누가 제공하느냐에 중점을 두어 정부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받고 있으나 서비스 제공 주체가 민간인 경우에는 민간 자원으로 간주하였다. 이러한 민간자원에는 영리자원, 비영리자원, 비공식자원이 포함된다.

3) 각 지역을 대표하는 곳을 선정하기 위하여 기혼가임여성인구가 중위수에 해당하는 지역을 조사대상 지역으로 선정하였다. 농촌의 경우 전국의 87개 군을 대상으로 기혼가임여성인구가 중위수에 해당하는 경상남도 하동군을 선택하였으며, 중소도시의 경우 전국의 76개 시 중 강원도 강릉시를 선택하였다. 대도시의 경우 7개 광역시에 속한 67개 구 중에서 특히 서울 지역을 조사 지역으로 선정하기 위해 기혼가임여성인구 중위수 상하위 약 5%에 해당하는 지역 중 서울에 속하는 구인 성동구를 선정하였다.

3. 조사 결과

1) 서비스 이용 현황

세 지역 모두 여성들이 임신 출산 관련 서비스에 대해 가장 많이 받고 있는 서비스는 친인척을 통해 제공되고 있는 산후 조리 서비스였다⁴⁾. 서울시 성동구와 강릉시의 경우에는 병원 및 산후조리원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는 경우가 있었으나, 하동군의 경우 비공식자원인 이웃·친구 혹은 친인척으로부터 서비스를 받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사실은 출산·양육 관련 서비스에 대하여 대도시와 중소도시의 경우 비공식자원인 친인척과 영리자원인 병원을 고르게 활용하고 있는데 반해, 농촌

의 경우는 비공식자원인 친인척과 이웃·친구에게 의존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미취학 자녀의 낮 시간 보육을 담당하고 있는 곳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곳은 육아지원 시설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서울시 성동구와 강릉시가 하동군에 비해 영유아 보육을 보육시설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았다. 또한 여성들이 취업 여부와 상관없이 영유아 자녀를 보육 시설에 맡기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이러한 현상은 대도시와 중소도시에서 현저하게 나타났다. 농촌 지역인 하동군의 경우, 취업 여성의 보육 시설 이용 비율은 높았지만 미취업 여성의 경우 자녀를 스스로 돌보고 있는 비율이 도시 지역보다 높았다.

표 1. 주로 이용하는 서비스: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구 분				(단위: 명, %)
			서울시 성동구	강원도 강릉시	경남 하동군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주로 받은 서비스	임신·출산 관련 정보 제공	93(37.2)	126(50.4)	89(35.6)	
		산후조리서비스	93(37.2)	78(31.2)	154(61.6)	
		양육관련교육 및 훈련	27(10.8)	13(5.2)	2(0.8)	
		산전후건강증진서비스	37(14.8)	33(13.2)	5(2.0)	
		계	250(100.0)	250(100.0)	250(100.0)	
	주로 받은곳	친인척	109(43.6)	113(45.2)	151(60.4)	
		병원	57(22.8)	70(28.0)	17(6.8)	
		산후조리원	32(12.8)	25(10.0)	27(10.8)	
		대중매체	21(8.4)	14(5.6)	10(4.0)	
		이웃·친구	21(8.4)	15(6.0)	37(14.8)	
기타	10(4.0)	13(5.2)	8(3.2)			
계		250(100.0)	250(100.0)	250(100.0)		

4)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중 병원이나 보건소 등을 통해 제공 받는 보편적인 의료서비스는 제외하고 산후 조리 서비스, 양육 관련 교육 및 훈련, 산전후 건강증진 서비스 등에 대해 조사하였다.

표 2. 주로 이용하는 서비스: 영유아 보육

(단위: 명, %)

구분	서울시 성동구			강원도 강릉시			경남 하동군		
	취업	미취업	계	취업	미취업	계	취업	미취업	계
본인	7(14.0)	57(50.9)	64(39.5)	5(9.3)	47(50.5)	52(35.4)	8(17.4)	61(62.2)	69(47.9)
유치원	13(26.0)	21(18.8)	34(21.0)	5(9.3)	18(19.4)	23(15.6)	2(4.3)	2(2.0)	4(2.8)
어린이집	18(36.0)	23(20.5)	41(25.3)	23(42.6)	22(23.7)	45(30.6)	28(60.9)	35(35.7)	63(43.8)
학원	3(6.0)	9(8.0)	12(7.4)	2(3.7)	5(5.4)	7(4.8)	-	-	-
친인척	6(12.0)	1(0.9)	7(4.3)	15(27.8)	0(0.0)	15(10.2)	8(17.4)	0(0.0)	8(5.6)
기타	3(6.0)	1(0.9)	4(2.5)	4(7.4)	1(1.1)	1(0.7)	0(0.0)	0(0.0)	0(0.0)
계	50(100.0)	112(100.0)	162(100.0)	54(100.0)	93(100.0)	147(100.0)	46(100.0)	98(100.0)	144(100.0)

서울시 성동구와 강릉시의 경우 초등학교 저학년 방과후 보육은 70% 이상이 학원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 자녀의 방과후 보육을 학원에 맡기는 비율은 취업 여성이 미취업 여성 보다 높았다. 하동군의 경우는 자녀를 학원에 보내는 비율이 본인이 직접 돌보는 비율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취업 여성은 자녀를 학원에 보내는 비율과 본인이 직접 돌보는 비율이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

촌의 경우, 학원에 대한 접근성이 어려워 자녀를 학원에 보내기보다 직접 돌보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취업 여성이라 할지라도 일용직으로 농사일을 돕는 경우가 많아 자녀를 방과후에 집안에서 방치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가족생활 관련 상담 및 교육은 세 지역 모두 거의 대부분 이웃·친구 혹은 친인척을 통해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부분의 여성들이 전

표 3. 주로 이용하는 서비스: 초등학교 방과후 보육

(단위: 명, %)

구분	서울시 성동구			강원도 강릉시			경남 하동군		
	취업	미취업	계	취업	미취업	계	취업	미취업	계
본인	4(9.5)	12(19.7)	16(15.5)	2(4.4)	19(31.1)	21(19.8)	12(35.3)	28(52.8)	40(46.0)
학원	35(83.3)	43(70.5)	78(75.7)	42(93.3)	40(65.6)	82(77.4)	13(38.2)	25(47.2)	38(43.7)
친인척	1(2.4)	0(0.0)	1(1.0)	1(2.2)	1(1.6)	2(1.9)	6(17.6)	0(0.0)	6(6.9)
방과후교실	1(2.4)	2(3.3)	3(2.9)	-	1(1.6)	1(0.9)	-	-	-
지역아동센터	-	3(4.9)	3(2.9)	-	-	-	-	-	-
기타	1(2.4)	1(1.6)	2(1.9)	-	-	-	3(8.8)	-	3(3.4)
계	42(100.0)	61(100.0)	103(100.0)	45(100.0)	61(100.0)	106(100.0)	34(100.0)	53(100.0)	87(100.0)

문적인 서비스가 아닌 비공식자원을 활용한 비전문적인 서비스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도시지역의 경우 인터넷 등 대중매체를 통해 상담 및 교육을 받는 경우도 적지 않은 수로 나타났는데, 이 또한 상담 전문가에 가서 조언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카페 회원들로부터 조언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전문적인 상담이라고 보기 어렵다.

직업 관련 교육 및 훈련을 받고 있는 여성은 세 지역 모두 소수에 불과하였다. 직업교육을

받지 않은 이유를 세 지역 모두 취업 여성의 경우 '받을 필요가 없어서' 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으며, 미취업여성의 경우 '자녀 양육' 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취업 여성들은 이미 직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교육 및 훈련이 필요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미취업여성의 경우 직업 교육 및 훈련을 받는데 가장 큰 애로사항은 자녀 양육인 것으로 분석된다.

출산·양육 관련 서비스에 대하여 주로 정보

표 4. 주로 이용하는 서비스: 가족생활 관련 상담 및 교육

(단위: 명, %)

구분	서울시 성동구	강원도 강릉시	경남 하동군
이웃·친구	152(60.8)	119(47.6)	150(60.0)
친인척	37(14.8)	32(12.8)	45(18.0)
대중매체	31(12.4)	83(33.2)	23(9.2)
육아지원시설	18(7.2)	6(2.4)	24(9.6)
기타	12(4.8)	10(4.0)	8(3.2)
계	250(100.0)	250(100.0)	250(100.0)

표 5. 주로 이용하는 서비스: 직업관련 교육 및 훈련

(단위: 명, %)

구분	서울시 성동구	강원도 강릉시	경남 하동군
계	250(100.0)	250(100.0)	250(100.0)
받은적 없음	242(96.8)	207(82.8)	243(97.2)
받은적 있음	8(3.2)	43(17.2)	7(2.8)
공공기관	3	16	2
여성단체	3	7	-
교육기관	1	11	4
사회복지기관	1	-	1
직업훈련기관	-	8	-
일반기업체	-	1	-

를 제공받는 곳을 조사 응답자 대부분이 친인척 혹은 이웃·친구로 응답하여 서비스 정보를 주변에 있는 비공식적인 정보 제공자로부터 받고 있으며, 보다 탐색적인 정보 취득을 위해 대중매체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하지만, 농촌 지역인 하동군의 경우, 대중매체를 통

하여 정보를 받고 있는 경우가 도시 지역 보다 낮아, 탐색적인 정보 취득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세 지역 모두 주로 같은 읍면동이나 같은 시군구에 위치하고 있는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동군의 경우 성동구와 강릉

시와 비교하여 같은 읍면동에 위치하고 있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율이 높았다. 강릉시의 경우, 다른 지역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읍면동을

벗어난 시군구에 위치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향이 높았다. 한편, 강릉시와 하동군의 경우, 임신 출산 관련 서비스나 직업 관련 교육 및 훈련

표 6. 출산·양육 관련 정보를 주로 제공 받은 곳

구 분		서울시 성동구	강원도 강릉시	경남 하동군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친인척	152(60.8)	153(61.2)	158(63.2)
	이웃·친구	50(20.0)	62(24.8)	55(22.0)
	대중매체	23(9.2)	14(5.6)	7(2.8)
	병원	16(6.4)	15(6.0)	14(5.6)
	기타	9(3.6)	6(2.4)	16(6.4)
	계	250(100.0)	250(100.0)	250(100.0)
영유아보육	이웃·친구	78(79.6)	67(71.3)	61(81.3)
	친인척	12(12.2)	25(26.6)	11(14.7)
	대중매체	5(5.1)	-	2(2.7)
	공공기관	2(2.0)	1(1.1)	1(1.3)
	기타	1(1.0)	1(1.1)	-
계	98(100.0)	94(100.0)	75(100.0)	
초등학교 저학년 방과후 보육	이웃·친구	79(90.8)	73(85.9)	36(76.6)
	친인척	3(3.4)	8(9.4)	9(19.1)
	대중매체	3(3.4)	4(4.7)	-
	기타	2(2.3)	-	1(1.3)
계	87(100.0)	85(100.0)	47(100.0)	
가족생활관련 상담 및 교육	이웃·친구	181(72.4)	134(53.6)	176(70.4)
	친인척	38(15.2)	34(13.6)	46(18.4)
	대중매체	30(12.0)	79(31.6)	23(9.2)
	기타	1(0.4)	3(1.2)	5(2.0)
계	250(100.0)	250(100.0)	250(100.0)	
직업관련 교육 및 훈련	이웃·친구	4(50.0)	12(27.9)	5(71.4)
	공공기관	2(25.0)	9(20.9)	-
	대중매체	1(12.5)	18(41.9)	1(14.3)
	각종단체	1(12.5)	3(7.0)	1(14.3)
	계	8(100.0)	43(100.0)	7(100.0)

표 7. 서비스 제공 기관의 위치

(단위: 명, %)

구 분		서울시 성동구	강원도 강릉시	경남 하동군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같은 읍면동	105(42.0)	61(24.4)	144(57.6)
	같은 시군구	110(44.0)	166(66.4)	31(12.4)
	같은광역시 혹은 도	21(8.4)	11(4.4)	32(12.8)
	다른광역시 혹은 도	10(4.0)	9(3.6)	43(17.2)
	기타	4(1.6)	3(1.2)	-
계	250(100.0)	250(100.0)	250(100.0)	
영유아 보육	같은 읍면동	146(90.1)	97(66.0)	144(100.0)
	같은 시군구	14(8.6)	50(34.0)	-
	같은광역시 혹은 도	1(0.6)	-	-
	다른광역시 혹은 도	1(0.6)	-	-
계	162(100.0)	147(100.0)	144(100.0)	
초등학교 저학년 방과후보육	같은 읍면동	89(86.4)	58(54.7)	85(97.7)
	같은 시군구	12(11.7)	48(45.3)	1(1.1)
	같은광역시 혹은 도	2(1.9)	-	1(1.1)
	다른광역시 혹은 도	-	-	-
계	103(100.0)	106(100.0)	87(100.0)	
가족생활관련 상담 및 교육	같은 읍면동	179(71.6)	110(44.0)	220(88.0)
	같은 시군구	58(23.2)	87(34.8)	12(4.8)
	같은광역시 혹은 도	5(2.0)	1(0.4)	5(2.0)
	다른광역시 혹은 도	5(2.0)	8(3.2)	13(5.2)
	기타	3(1.2)	44(17.6) ⁵⁾	-
계	250(100.0)	250(100.0)	250(100.0)	
직업관련 교육 및 훈련	같은 읍면동	3(37.5)	13(30.2)	3(42.9)
	같은 시군구	5(62.5)	27(62.8)	4(57.1)
	같은광역시 혹은 도	-	2(4.7)	-
	다른광역시 혹은 도	-	1(2.3)	-
	계	8(100.0)	43(100.0)	7(100.0)

5) 기타라고 응답한 대부분의 사람은 대중매체를 이용한 사람이었다. 대중매체를 이용한 경우 기관의 위치를 응답하기 곤란하여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타란에 응답한 것으로 추측된다.

과 같은 전문적인 서비스에 대해서는 이동시간이 1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도 있었다. 영유아 보육 서비스와 초등학교 저학년 방과후 보육의 경우는 거리상으로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는 기관으로부터 서비스를 받는 경향이 특히 강하게 드러났다.

서비스 제공자 혹은 기관까지 가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모든 서비스에 있어서 대부분 30분 이내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하동군의 경우 다른 두 지역보다 10분 이하의 거리에서 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하동군은 임신 출산 관련 서비스를 제공 받음에 있어 제공기관까지의 이동거리가 1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다른 지역보다 많았다. 그 이유는 병원 혹은 산후 조리원까지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1시간 가까이 소요되는 경우가 상당수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2) 서비스 이용에 대한 평가

서비스 이용 비용에 대해 대부분 본인이나 친인척 등 비공식자원이나 공공자원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비용이 저렴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으며, 민간영리자원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비싸다고 응답한 경우가 많았다. 서비스 질에 대해서는 세 지역 모두 보통 이상으로 긍정적인 답변을 보였다. 본 조사 대상 다섯 가지 종류의 서비스는 모두 고위험 탐색재로서, 서비스 제공자 혹은 기관을 선택할 때 그 품질 수준이 개인에게 있어 충분히 만족스러운 것을 선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이로 인하여 서비스 질에 대한 평가는 평균 이상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고 판단된다.

서비스에 대해 만족하는 가장 큰 이유는 대체적으로 신뢰성, 전문성, 접근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경우 서울시 성동구와 강릉시에서는 전문성이 접근성 보다 만족하는 더 큰 이유였던 반면, 하동군은 전문성 보다는 접근성이 만족하는 더 큰 이유였다.

전반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서울시 성동구의 경우는 서비스 질의 향상과 본인 부담 감면을 원하는 경우가 많았고, 강릉시의 경우는 대도시와 비교하여 정보 제공 강화를 원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동군에서는 기관수의 확충을 원하는 경우가 도시 지역에 비해 많았다.

3) 적절한 서비스에 대한 인식

대부분의 여성들이 현재 받고 있는 서비스에 대해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만족하고 있는 경우에도 현재 받고 있는 서비스가 아닌 다른 서비스가 더 적절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특히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와 가족 관련 상담 및 교육과 같이 전문성을 요구하지만 실제로 친인척이나 친구·이웃 등 비전문적인 비공식자원으로부터 서비스를 받은 경우 현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영유아 보육이나 초등학교 방과후 보육의 경우 실제로 시설을 이용하는 비율이 높았으나, 서비스를 받기에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자원은 본인 자신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많았다. 이는 육아 서비스를 지원하는 시설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본인을 대체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만족스러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 못

하다는 사실을 지적해 준다.

전반적으로 살펴 보았을 때 중소 도시인 강릉시의 경우, 현재 받고 있는 서비스 이외에 다른 서비스를 선호하는 비율이 서울시 성동구와 하동군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릉시는 중소도시이기 때문에 하동군에 비해 비교적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많이 알고 있으며 소득 수준도 비교적 높아 보다 나은 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강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강릉시 내부에서 이렇게 서비스에 대한 높은 욕구를 충족시켜 줄 자원은 한정되어 있고, 그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자원은 서울 등 광역시에 존재하고 있어 쉽사리 접근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반면에 하동군의 경우 현재 받고 있는 서비스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서비스가 일치하는 비율이 높았다. 그 이유는 정보 부족 혹은 주변의 자원 부족 등으로 인하여 보다 질 좋은 서비스에 대해 잘 모르고 있고, 따라서 서비스에 대한 욕구 역시 낮아 현재 받고 있는 서비스가 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

4. 조사 결과의 시사점

본 고에서는 출산·양육 관련 지역사회자원 에 대하여 시민들의 자원 활용 현황과 욕구를 대도시, 중소도시, 농촌을 대표할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하여 분석하고 그 시사점을 모색하였다. 본 절에서는 이러한 조사 결과에 기초하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출산·양육 관련 지원 정책이 지역사회자원을 활용하여 보다 효과적

으로 추진될 수 있는 정책적인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현재 비공식적인 자원에 의해 주로 제공되고 있는 산후조리서비스, 양육 관련 교육 및 훈련, 산전후 건강증진 서비스 등을 공식적이고 전문적인 기관에 의해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대도시의 경우 민간 병원에 대한 접근도가 높으므로 병원에서 관련 서비스를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정부는 지역 사회 병원 협회 등에 의뢰하여 모성 보호 캠페인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민간영리자원에 대한 접근성이 부족한 농촌 지역에서는 보건소나 사회복지관 같은 공공자원을 이용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공공시설에 대한 접근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찾아가는 방문 서비스와 교육과 훈련을 받은 마을 부녀회 회원들을 자원봉사자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중소도시는 대도시와 농촌의 단점을 모두 가지고 있어 대도시 유형의 사업과 농촌 유형의 사업을 혼합해서 적용할 필요가 있다. 여성단체 조직이 활성화되어 있다는 사실을 감안하여 관련 프로그램을 여성단체에게 위탁하여 수행하는 것도 유용할 것이다.

보육시설은 여성들의 보육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원인은 서비스 비용, 서비스의 질, 접근성의 문제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대도시의 경우, 육아지원 시설에 대한 비용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특기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정부 규제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며, 반면에 다양한 보육서비스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는 관련 규제

의 장벽을 낮추어 주는 것이 요청된다. 중소도시의 경우 보육시설에 대한 접근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공공 보육시설의 확충이 필요하며, 각종 여성 단체의 자원 봉사자를 활용하여 공동육아 서비스 개발에 힘써야 할 것이다. 농촌 지역에서는 농번기의 계절적 보육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하다.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의 보육에 있어서는 교육비용, 보육과 교육을 함께 충실하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불충분성, 이동에 따른 위험성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대도시의 경우 보육 비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초등학교 방과후 교실, 지역사회 복지관 및 청소년 센터 등이 제공하는 보충 교육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보육 지원이 필요한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들을 대상으로 보육과 교육 서비스를 통합하여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중소도시에서 보육 시설에 대한 접근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앙기구를 중심으로 하되 점조직 형태로 각 지역 마다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마련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농촌에서는 미취학 아동의 보육과 마찬가지로 농번기 때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

를 돌봐 줄 수 있는 서비스의 개발이 필요하다.

아직 우리 사회에서는 상담 문화가 크게 자리 잡고 있지 못한 바, 그 원인은 상담에 대한 올바른 인식 부족, 상담 서비스에 대한 정보 부족, 상담 서비스 제공 기관에 대한 접근성 부족이 지적되었다. 상담에 대해 시민들이 올바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국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프라이버시를 존중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상담 시설에 대한 접근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찾아 가는 상담 서비스 및 차량 운행 제공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취업 관련 교육 및 훈련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교육 및 훈련을 통해 노동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자격증을 갖춘 여성들이 쉽게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역사회에 있는 기업과 연계하여 교육 및 훈련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교육 시설로의 접근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편이나 방송 혹은 인터넷을 통해 교육을 제공하고 자격이 갖추어진 사람에게 자격증을 교부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보건복지